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영역 해설

총평

6월 모의고사보다 9월 모의고사가 어려운 것은 사회·문화의 유구한 전통입니다. 당연히 이번 9월 모의고사 또한 6월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개념 문제에서 난이도를 높이려는 듯한 시도가 보였습니다. 사회 실재론/명목론인 7번, 진화론/순환론인 11번, 세계화로 인한 문제인 18번 전부 기본 개념에 기반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시문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문제를 분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능 또한 이러한 수준의 제시문을 출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비해, 준킬러 문제들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같거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탈 이론인 9번, 자료 수집 방법인 14번 모두 난이도가 높기에 케이스를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이미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쉽게 푼 학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답률도 위의 문제들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표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이는 것과 달리 높지 않습니다. 이번 9월 모의고사의 문제들은 계산을 크게 요구하지 않기에 시간 내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정답] ③

[해설]

㉠,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③ 사회·문화 현상에는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답]

① 불가치적인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②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④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⑤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상은 자연 현상이다.

2. [정답] ④

[해설]

제시문에 따르면, 사회의 도덕적 가치는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은 이를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하고 자신의 역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개인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바라보므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기능론이다.

④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오답]

①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이론은 갈등론이다.

②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이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③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이론은 갈등론이다.

⑤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이론은 갈등론이다.

3. [정답] ①

[해설]

A는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탈관료제이다. B는 '위계가 강조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료제이다. 또한 (가)에는 앞서 언급한 '위계가 강조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개인이 자신의 높은 직급을 내세우며 의사 결정을 독점하여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 들어가야 한다.

① 관료제(B)에서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오답]

②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 사회 조직의 유형은 탈관료제(A)이다.

- ③ 조직 내 무사안일주의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조직의 유형은 관료제(B)이다.
- ④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사회 조직의 유형은 관료제(B)이다.
- ⑤ ‘수평적 의사 결정 구조의 강화’는 앞서 제시문에서 언급된 관료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4. [정답] ③

[해설]

A에는 문화를 ‘어머니로부터 배’운다는 점에서 학습성, B에는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 ㄴ.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며 익히는 것’은 학습성의 사례이다.
- ㄷ. 공유성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 ㄱ.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의 속성은 축적성이다.
- ㄹ.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은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는 사례이다.

5. [정답] ④

[코멘트]

얼핏 보면 평범한 연구 설계 문제 같지만, 실제 연구는 제시문의 중반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갑이 사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법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해설]

- ㄴ. 갑은 ‘데이터베이스에서 ... 학생 각각 1000명을 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므로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ㄷ. 갑의 연구를 통해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오답]

- ㄱ. 문헌 연구법에서는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6. [정답] ⑤

[해설]

- ⑤ 해당 만평은 대중문화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사실을 첨부하는 과정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

- ①, ②, ③, ④는 해당 만평과 관련이 없다.

7. [정답] ②

[코멘트]

제시문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인간이 제도에 복종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읽힐 수 있어, 필자의 관점이 사회 실재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설]

제시문은 ‘자기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을 필연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은 인간은 ‘자기기만을 하며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 ‘자기기만을 의식’하여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입장은 사회 명목론이다.

- ㄱ. 사회 명목론은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 ㄷ.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오답]

- ㄴ.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이론은 사회 실재론이다.
- ㄹ.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이론은 사회 실재론이다.

8. [정답] ①

[해설]

㉠에는 A 이주민들이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개한 사회 운동이 나타난다. 또한 이 운동에서는 갑국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대해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 또한 A 이주민들이 전개한 운동이지만, 이 운동은 이주민들을 주변화했던 ‘갑국 사회의 제도와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반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 ① ㉠에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오답]

- ② ㉡에는 반문화의 특성이 나타나지만,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③ ㉡은 A 이주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사회 운동이다.
- ④ ㉠은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 ⑤ ㉠과 ㉡은 모두 A 이주민들이 전개한 사회 운동으로,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 아니다.

9. [정답] ④

[코멘트]

케이스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또한 한 이론은 ‘예’, 다른 이론은 ‘아니요’로 답해야 하는 질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해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맞음’이므로, 낙인 이론은 A와 B 중 하나이다.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이론은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이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맞음’이므로,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은 A와 D 중 하나이다.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이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맞음’이므로, 낙인 이론은 B와 C 중 하나이다.

만약 낙인 이론이 A라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평가는 ‘맞음’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만약 낙인 이론이 C라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평가는 ‘맞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낙인 이론은 B이다.

타인과의 상호 작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은 낙인 이론과 차별 교제 이론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틀림’이다. 이때 낙인 이론은 B이므로, C와 D는 각각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중 하나이다.

만약 C가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이라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평가는 ‘맞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은 D이고, C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B는 차별 교제 이론이다.

④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D)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한다.

[오답]

- ①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낙인 이론(B)이다.
- ②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하는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C)이다.
- ③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보는 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B)이다.
- 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C)과 뒤르케임의 아노미 이론(D)이다.

10. [정답] ②

[코멘트]

평이한 난이도의 계층 이동 문제입니다. 문제의 형태가 전형적이고, 자료가 전부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 기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해석이 쉽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국가 간의 비교와 같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비율을 그대로 인구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갑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B는 하층 이동으로밖에 진입할 수 없다. 따라서 B는 하층이다. 또한 병은 A에서 C로 상승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C는 상층, A는 중층이다. 이를 기반으로 <자료 1>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

자녀\부모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20
중층				50
하층				30
전체	20	30	50	100

<자료 2>를 해석하면,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중층(A)에서 하층(B)으로 10%가, 상층(C)에서 하층(B)으로 5%가, 중층(A)에서 상층(C)으로 10%가 이동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자료 2>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

자녀\부모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10		20
중층		10		50
하층	5	10	15	30
전체	20	30	50	100

이때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이기 때문에 상층(C)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의 비율은 5%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

자녀\부모	상층	중층	하층	전체
상층	5	10	5	20
중층	10	10	30	50
하층	5	10	15	30
전체	20	30	50	100

②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C)이 5(%), 중층(A)이 10(%)이다.

[오답]

- ① 갑의 부모 계층은 중층(A), 을의 부모 계층은 상층(C)이다.
- ③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는 25(%),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는 45(%)이다.
- ④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 ⑤ 자녀 세대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기 때문에 피라미드형인 부모 세대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 실현에 유리하다.

11. [정답] ②

[코멘트]

필자의 관점이 헛갈립니다. 그런데 제시문 내에서 특정한 키워드들을 찾는다면 이를 기반으로 쉽게 필자의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설]

필자는 해당 제시문에서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관점은 순환론이다.

- ㄱ. 순환론은 운명론적 시각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 ㄴ.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으로 설명한다.

[오답]

- ㄷ.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이론은 진화론이다.
- ㄹ.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보는 이론은 진화론이다.

12. [정답] ⑤

[코멘트]

헛갈리는 요소들이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우선 ‘~에서 착안하여 ~를 개발’이란 워딩을 보고 자극 전파라 생각한 분들이 계실텐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 요소에서 착안했는지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해당 문화 요소가 어느 국가의 문화 요소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쓰인 문제로는 2024년 7월 학력평가 13번(과 이에 착안한 수많은 사설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고 문화 동화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기존의 문화가 외래 문화 때문에 소멸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 병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변동의 예시가 아닌 서술이 있어, 이를 주의하며 읽어야 합니다.

[해설]

‘갑국에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A는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는 갑국 내에서 일어난 문화의 변동 사례로, 발명의 예시이다.

‘이 향수는 갑국의 귀족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는 서술로 문화 변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없기에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의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가져가 판매했다. 이로 인해 갑국의 서민층도 바르는 향수를 사용하게 되어 갑국에서 향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병존의 예시이다.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A는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서술로 문화 변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알 수 없기에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을 의도한 것 같긴 하다)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망명한 후 갑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하였다. A의 향수는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다’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병존의 예시이다.

- ⑤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오답]

- ① 갑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지 않았다.
- ② 을국에서는 물질문화의 전파만이 나타났다.
- ③ 갑국에서는 자극 전파가 나타나지 않았다.
- ④ 갑국에서는 문화 융합이, 을국에서는 문화 동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3. [정답] ④

[코멘트]

신문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을 놓쳐 문제를 틀린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SNS,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임을 알고 가길 바랍니다.

[해설]

자료에서 나타난 사회 집단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건설 회사,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신문

- ㄱ. ㉠과 ㉡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 ㄴ.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고등학교로 1개, 비공식 조직은 사내 혼성 합창단으로 1개이다.
- ㄷ. 자료에 적혀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로 4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건설 회사, 사내 혼성 합창단, 노동조합, 마라톤 동호회, 노동 인권 단체, 신문으로 6개이다.

[오답]

- ㄹ.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은 공동 사회이다. 해당 제시문에는 공동 사회가 나타나 있지 않다.

14. [정답] ①

[해설]

두 번째 질문인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는 실험법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 이때 학생은 2점을 얻었다. 만약 실험법이 D라면, 학생은 0점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실험법은 A, B, C 중 하나이다.

세 번째 질문인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 작용이 필수적인가?’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 이때 학생은 3점을 얻었다. 만약 B가 질문지법 또는 면접법이라면, 학생은 1점을 얻었을 것이다. 따라서 질문지법 또는 면접법은 A, C, D 중 하나이다.

네 번째 질문인 '방법론적 일원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가?'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 이때 학생은 4점을 얻었기 때문에 C와 D는 각각 질문지법 또는 실험법 중 하나이다.

만약 C가 질문지법, D가 실험법이라면 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에 모순이다. 따라서 C는 실험법, D는 질문지법이다. 또한 세 번째 질문에 따라 면접법은 A, 참여 관찰법은 B이다.

- ① '현지에서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을 살펴보는가?'는 참여 관찰법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다. 이때 학생은 '예'에 면접법(A), 실험법(C)을 적었으므로 0점을, '아니요'에 참여 관찰법(B), 질문지법(D)을 적었으므로 1점을 얻는다. 따라서 ㉠은 '1점'이다.

[오답]

- ②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D)이다.
- ③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A), 참여 관찰법(B)이다.
- ④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A), 참여 관찰법(B)이다.
- ⑤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D)이다.

15. [정답] ⑤

[코멘트]

겉보기에는 A, B, C가 모두 있으니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예상보다 쉽습니다. 10번처럼 다른 집단/국가/년도와의 비교가 없기 때문에 비율을 그대로 인구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A는 사회 보험,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서비스이다. 이때 3중 수혜자의 비율은 2%인데, 중복 수혜자 중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비율과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3중 수혜자의 비율의 2배이기 때문에 4%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

구분	비율
A만 수급하는 사람	
B만 수급하는 사람	
C만 수급하는 사람	6
A, B만 수급하는 사람	
B, C만 수급하는 사람	2
C, A만 수급하는 사람	2
A, B, C를 모두 수급하는 사람	2
비(非)수혜자	8

이때 A, B만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을 a라고 한다면, A 또는 B를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을 통해 다음과 같이 a를 구할 수 있다.

$$70+19-(a+2)=100-(6+8) \rightarrow 87-a=86 \rightarrow a=1$$

(단위 : %)

구분	비율
A만 수급하는 사람	65
B만 수급하는 사람	14
C만 수급하는 사람	6
A, B만 수급하는 사람	1
B, C만 수급하는 사람	2
C, A만 수급하는 사람	2
A, B, C를 모두 수급하는 사람	2
비(非)수혜자	8
합계	100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얻은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 부조(B)이다. 사회 서비스(C)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6(%), 중복 수혜자 중 공공 부조(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5(%).이다.

[오답]

- ① 중복 수혜자 수는 7(%), 비(非)수혜자 수는 8(%).이다.
- ② 사회 보험(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65(%), 공공 부조(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4배는 $14 \times 4 = 56$ 이다.
- ③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A)과 공공 부조(B)이다. 중복 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100 - (1+2+2+2) = 93$ (%), 사회 보험(A) 또는 공공 부조(B)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100 - 14 = 86$ (%)이다.
- ④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 보험(A)이다. 비(非)수혜자 수는 8(%), 중복 수혜자 중 사회 보험(A)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배는 $(1+2) \times 2 = 6$ 이다.

16. [정답] ①

[해설]

A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B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외국에서 제정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 아니다.

- ① A는 갑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경찰은 업무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A는 사회적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오답]

- ②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 ③ A와 B는 모두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 ④ 갑국의 사례에는 역차별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B는 외국 국민이지만, 차별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지 않았다.

17. [정답] ④

[해설]

A는 문화 사대주의, B는 자문화 중심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④ 문화 상대주의(C)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오답]

- ①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C)이다.
- ②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문화 이해의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A)이다.
- ③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문화 이해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B)이다.
- ⑤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 이해의 태도는 문화 사대주의(A)와 자문화 중심주의(B)이다.

18. [정답] ①

[해설]

① (가)에는 '선진국의 경우 자본가들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겪었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소득 증가의 혜택은 자산가 및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를 요약하는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필자는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내부에서 증가한 불평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국가 내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가 (가)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하다.

[오답]

- ②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였다는 내용은 선진국에만 국한된다. 개발 도상국의 고숙련 노동자는 소득 증가의 혜택을 누렸다.
- ③ 제시문의 해당 부분에서 세계화가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제시문의 해당 부분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제시문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위계적인 분업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긴 하나, 이는 (가) 이전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에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다.

19. [정답] ⑤

[해설]

- ㉠, ㉡은 절대적 빈곤, ㉢은 상대적 빈곤이다.
- ⑤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답]

- ①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다.
- ②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 ③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태와 관련이 없다.
- ④ 경제 성장 이전의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 빈곤은 절대적 빈곤이다.

20. [정답] ③

[코멘트]

조건이 과하지 않고, 풀기에도 쉽지만 자료의 형태가 익숙하지 않기에 당황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성된 해설과 같이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구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는 가정이 있으므로, 비율을 그대로 인구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45%로 갑국의 0.75배이므로 갑국의 부양 인구의 비율은 60%이다.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기 때문에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부양 인구의 비율과 같고(노년 인구/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부양 인구 → 1/유소년 인구 = 1/부양 인구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노년 인구의 비율은 10%이다. 또한 을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100이므로 갑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1/4)×100이고, 따라서 갑국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15%, 노년 인구의 비율은 25%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유소년 인구	15	45
부양 인구	60	45
노년 인구	25	10
전체	100	100

이때 갑국에서는 t년 대비 t+3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고,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이 동일하므로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증가했고, 노년 인구의 비율은 감소했다. 을국에서는 t년 대비 t+3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동일하고,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이 감소했으므로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의 비율은 동일하게 감소했고, 노년 인구의 비율은 증가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t년	t+30년	t년	t+30년
유소년 인구	15	15보다 큼	45	45보다 작음
부양 인구	60	60	45	45보다 작음
노년 인구	25	25보다 작음	10	10보다 큼
전체	100		100	

- ③ t년의 을국의 총부양비는 $(55/45) \times 100 = (11/9) \times 100$ 이고, 120은 $(6/5) \times 100$ 으로 표현할 수 있다. 11/9와 6/5를 비교하면 $(11/9) \times 45 = 55$, $(6/5) \times 45 = 54$ 이므로 11/9가 6/5보다 크다. 따라서 t년의 을국의 총부양비는 120보다 크다. 이때 t+30년에 을국의 부양 인구는 감소하므로 11/9의 분모가 작아진다. 따라서 t+30년 을국의 총부양비는 t년의 총부양비보다 더 크기 때문에 120보다 크다. 이를 다시 나타내면 (t+30년 을국의 총부양비) > (t년 을국의 총부양비) > 120이다.

[오답]

- ① t년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5/3) \times 100$, 을국의 노령화 지수는 $(2/9) \times 100$ 이므로 t년에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작다.
- ② t년에 갑국의 노년 부양비는 $(5/12) \times 100$ 이므로 50보다 작다. 이때 t+30년에 갑국의 부양 인구의 비율은 동일하고, 노년 인구의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노년 부양비는 감소한다. 이를 다시 나타내면 (t+30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 < (t년 갑국의 노년 부양비) < 50이다.
- ④ t+3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에서 증가하고, 을국에서 감소한다.
- ⑤ t+30년에 노년 인구는 갑국에서 감소하고, 을국에서 증가한다.